

농촌 살리고 농업 활성화 '도농교류' 사업 활발

농협전남본부, 화순·담양 여성단체협의회 초청 '도농공감 교육'

NH농협은행 전남본부, 기업 CEO·단체장 명예마을이장 위촉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이 손잡고 있다. 이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도농공감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농협 간부가 마을의 명예이장이 되는 등 다양한 '도농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농공감 교육=농협전남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김육근)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화순과 담양지역에서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회원 50여명을 초청해 도농공감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육에는 지역사회 여론 선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오는 9월중에는 고위공직자 배우자분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제철 과일인 복숭아 수확체험에 이어서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유통 과정을 견학하였고, 전남농협 농촌지원단 김원일 단장의 '농업·농촌의 이해'와 모인팜스 손모아 대표의 '꿈꾸는 청년 여성 농업인'이라는 주제의 특강, 관내 문화탐방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농공감 교육 과정'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하고 전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급차 교

행사에 참여한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양희 회장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우리농산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

로 농업·농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농산물 애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 강남경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명예 마을 이장 위촉=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이인기)는 지난 22일 해남군 문내면 공항마을에서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이인기 본부장과 공항 마을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를 기념하여 '명예이장 위촉식'을 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CEO(최고경영자)와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이인기 본부장과 이상복 문내면 총무팀장, 박대선 농협해남군지부장, 김봉규 문내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이인기 본부장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직원들은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확산을 위해 마을주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점심식사 지원을 했고, 마을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항마을 마을회관에 김치냉장고와 진공정수기를 기증했다.

또 마을 어르신과 1대1 결연으로 안부전화하기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농번기에는 일손돕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화순과 담양에서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초청해 도농공감 교육 과정을 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최근 해남군 문내면 공항마을에서 '해남군 제1호 명예이장 위촉식'을 했다.

"햇콩마루 장흥된장 등 전남 농특산물 150종 한자리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28일까지

'전라남도 6차 산업박람회' 열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광주전남연구원과 연계해 오는 28일까지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6차 산업 박람회'를 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번 전라남도 6차산업 박람회는 전라남도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을 바탕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6차산업은 1(농림수산업), 2(제조·가공업), 3(복합 서비스업)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농어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식품매장에서 열리며, 장흥, 고흥, 영암, 함평 등 지역 영농조합 19개 업체가 참여해 의미를 높였다.

5년속성 천일염과 지하암반수로 제조한 장흥

특산물 '햇콩마루'장흥된장, 120년 내림 씨간장을 이용해 발효한 전통간장, 100% 국내산원료·유기농 상품 등 전남 대표 특산물 150여종을 선보이며, 지역별 유명 특산품들을 한데 모았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 시식관도 운영하여 전남 특산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며, 사은품으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다용도 밀폐용기를 선착순(300명만)으로 증정한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전남도 지역 우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대형 박람회를 광주점에서 최초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지역 농가의 판로확보와 6차산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순창, 완도, 여수, 진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와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정기적인 현지 답사를 통한 우수 농가 발굴 및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무등미곡처리장 '수탁형 쌀 판매사업' 호평

벼 40kg기준 생산비 1만원 절감

광주의 무등미곡종합처리장(대표 이상욱)의 '수탁형 쌀 판매 협동화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수탁형 쌀 판매는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쌀 수입 등을 대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광주지역에서는 광산구 평동, 임곡 등지의 친환경 벼 재배 단지 6곳의 100여 농가가 무등미곡과 수탁형 판매 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미곡에 따르면 이를 통해 벼 40kg 기준, 1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고, 벼 재배 농가들이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수탁협동화사업에 지정된 무등미곡종합처리장은 농가일손 달여주기 사업, 산물 벼·건조·가공·쌀 판매 사업으로 농가편익을 돕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가공·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협동정신

에 의거해 재배당하고 있다. 특히 벼 수탁 매입사업을 통해 농가 집단화와 영농규모 확대, 수확산지 벼 가격 안정화, 2014년 쌀 수입 자유화에 대처, 국내 쌀 산업 경쟁단지 규모화 육성의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광주, 전남 지역의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만 선택적으로 계약재배를 했고, GAP(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쌀 가공 과정에서 위생관리, 오염방지, 식품안전성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욱 대표는 "농업인들에게 협동조합 정신을 고취시켜 영농기업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서서 구민상 지역경제부문을 선도하겠다. 현재 이상욱 대표의 무등미곡종합처리장은 설립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향토기업으로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수매대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美 FOMC회의 '주목'

외국인 순매수 업종 상승 기대

박스권 흐름 지속 가능성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며 악재로 급부상했던 브렉시트가 최근 당사국인 영국과 뉴욕증시의 랠리를 촉발시킨 상황이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과 유럽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요국의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고 정책당국은 추가 양적완화를 망설이던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또 한번 돈풀기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며 글로벌 유동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국내증시에서도 외국인은 거래소시장에서 12월 연속 2조9429억원 순매수를 보이며 업종대표주를 중심으로 유동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외국인 매수종목은 단연 실적호전을 발표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이며 철강과 화학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다. 7월의 업종별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순매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전자는 업종시가총액 비중이 26%인데 순매수 비중은 35%를 보였고 철강금속은 시총 비중 3.7%인데 순매수 비중은 13%, 화학도 시총 비중은 11%인데 순매수 비중은 13%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상승 주도업종도 전기전자 철강 화학 등으로 외국인순매수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순매수는 글로벌유동성장세와 동조화를 보이고 있고 개별종목의 펀더멘털을 중시하며 중장기적 투자를 하는 액티브펀드자금 보다는 지난주 설명드렸던 비차익프로그램매매를 중심으로 업종이나 시장을 매수하며 환율에 보다 민감한 패시브자금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동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도주의 흐름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장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코스피 박스권 상단을 넘는 흐름도 이들 업종의 추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동성장세가 마무리되면 제일먼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업종도 전기전자 철강 화학 등 이들 업종이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의 양면을 같이 살펴 봐야 한다.

코스피지수에 대한 시장대응을 언급할 때 마다 박스권 장세에 따라 하락시마다 코텍스레버리지의 저점매수를 적극 권유했었다. 이번 브렉시트에서도 국내증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1900선 이하의 저점매수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머징국가중에서 밸류에이션과 환율 안정성이 높아 외국인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박스권상단인 2000포인트 이상으로 밸류에이션만 본다면 상대적 매력도는 낮지만 유동성장세의 특성상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도 있어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3분기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박스권 돌파 시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도 25~29일은 미국 FOMC와 일본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해외변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는 좁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업종도 지난주에 이어 재료가 부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h2>오피스텔 및 사무실 임대</h2> <p>(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층 - 45평 ▶ 최고급 인테리어 (약 5평 저운 짐필방) (시설비 약 4천만) ▶ 천변로 전망 최고!! 주차 완비 (사무실 최적합) <p>★ 보 2,000만 월 70만 ★</p>	<h3>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매매</h3> <p>(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층 - 23평 투룸 형, 코너자리, 리모델링완비, 풀옵션 → 보 500만, 월 45만 <p>▶ 매가 8천 500만</p>	<h3>서구 삼촌동 고급형 원룸 매매</h3> <p>(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 10평 리모델링완비, 풀옵션 → 보 200만, 월 30만 <p>▶ 매가 4천만</p>	<h2>법률경매</h2> <p>(주)대신경매</p> <p>수익성경매물건 추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성 상무대 앞 (3층 상가건물) 토 367평, 건 980평 / 1층(식당) 2층 (사무실) 주차 완비 감정가 15억 → 최저가 3억 4천 2. 동구 금남로 (3층상가) 토 177평, 건 250평 / 금남로 57억, 47억 1분 1층(은행) 2층~3층 (사무실) 감정가 21억 → 최저가 15억 3. 광천동 (다가구 원룸) 토 35평, 건 108평 / 광천터미널 건너편, 재개발 지역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 9천 <p>경매 실전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주 OPEN ② 실전교육과 동시에 수익창출 ③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p>직원 구함</p> <p>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경매관심있으신분 가족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p>
	<h3>광양시 광영동 아파트 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 산업단지 10분, 아파트 밀집지역 12층 - 15평 리모델링완비 완비, 전세값에 내집 마련 <p>▶ 매가 4천만</p>	<h3>서울 용산 오피스텔 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명여대 2분, 서울역 10분 13평 (리모델링 완비) → 보 600만 월 60만 <p>▶ 매가 1억 6천만</p>	

010-6670-9800 010-7384-7800 062-382-5500 010-6834-4800